

## 탈세에 대한 형평성 효과

류윤상 · 박광배 · 김유진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적 상황(simulation)을 통하여 납세에 대한 형평성 판단이 탈세행동을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학생들과 실제 사업자들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였다: (1)대학생들은 수직적 형평성이 파기된 경우 다른 형평성이 파기된 경우보다 더 심한 탈세행위를 보일 것이고; (2)사업자들은 수평적 형평성과 교환적 형평성이 파기된 경우 더 심한 탈세행위를 보일 것이다. 이 사실들의 근거는 수직적 형평성 판단은 수평적 형평성 판단에 비하여 실질적인 결과의 비교보다는 가치관과 규범에 더 많이 좌우되고, 실제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실제 사업자들에 비하여 더 규범적인 형평성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컴퓨터에 의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2가지 중요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조세의 형평성이 파기되면 탈세 행동이 유발된다. 둘째, 규범처리모형에 의해 형평성 판단을 하는 납세자는 주로 수직적 형평성에 주목하여 납세행위를 하는 반면, 결과처리모형에 의해 형평성 판단을 하는 납세자는 주로 수평적 형평성에 주목하여 납세행위를 한다. 실제적인 조세정책을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논의되었다.

탈세는 대표적인 사회적 딜레마 현상중의 하나이다. 사회가 개인의 이익을 억제하고 사회적 선(善)만을 추구하면 결국 개인들의 성장과 발전이 저하되고 억압되어 그 영향이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개인들이 사회적 선을 무시하고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면 결국 사회적 자원이 고갈되어 그 폐해가 개인에게로 돌아간다.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에서나 탈세행위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탈세행위의 역사는 아마도 조세제도의 역사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Webley, Robben, Elffers, & Hessing, 1991). 탈세행위는 탈법 혹은 위법적인 행위이지만 반드시 부도덕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다. 탈세행위의 부도덕성 여부는 과세제도의 공정성, 합목적성, 그리고 타당성을

떠나서 판단될 수 없는 상대적인 가치판단 개념이다. 탈세행위의 역사가 심오하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며, 사회적 딜레마를 내포하는 행위이고, 과세제도의 합당성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은 그 행위가 가지는 법적, 사회적 의미와 심각성 이외에도 일반적인 인간행위에 개입하는 심리적인 판단 및 결정과정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납세 및 탈세와 관련하여 심리학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형평성(equity)의 문제이다. 조세제도는 국가 운영을 위한 비용조달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실현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국가는 조세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평등과 분배정의를 실현한다(e.g., Adams, 1965; Crosby, 1982;

Homans, 1974; 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형평에 대한 심리학적 관심사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분배하며, 어떻게 분배되었을 때 공정하게 또는 불공정하게 지각하며, 이때 개인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이다. 따라서 심리학적 관심사는 정의로운 분배의 당위적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와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려는 것이다(장성수, 1986). Festinger(1954)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태도, 능력, 가치 등을 평가할 때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집단, 즉 준거집단과 비교한다고 한다. 그러한 비교에 의해 만약 불형평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그 불균형을 제거하고 균형 혹은 형평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Walster와 Berscheid(1973)는 이전의 경제학적 형평이론을 수정 보완하여 초기에 주로 산업 및 조직장면에 적용되어 연구되었던 형평이론을 제반 인간관계, 즉 사업관계, 착취관계, 도움관계, 친밀관계 등에 확대 적용하여 경제학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의 주요 이론으로 부각시켰다. Walster 등(1973)은 형평이론이 크게 4가지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제1명제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는 전제이다. 제2명제는 개인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하므로 이를 통제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는 형평분배 체제를 마련하고, 처벌과 보상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이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사회화한다는 것이다. 제3명제는 개인이 불형평을 지각하면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며 불형평이 클수록 개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명제는 불형평 상태에서 개인은 불편한 긴장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형평으로 회복하도록 동기화되며, 이는 불형평 상태에서의 긴장이 클수록 형평으로 회복하려는 동기가 크다는 것이다. Walster(1973)는 불형평을 지각한 사람이 형평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실제적으로 형평을 회복하는 것과 심리적으로 형평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실제적으로 형평을 회복하는 것은 과다불형평인 경우 자신의 성과를 줄이는

대신 타인의 성과를 높이고, 과소불형평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높이거나 상대방의 성과를 작게 함으로써 형평회복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심리적인 방법은 인지적 왜곡을 통해서 자신의 투입이나 성과 혹은 상대방의 투입이나 성과를 달리 지각함으로써 형평을 회복하는 방법이다(장성수, 1986).

탈세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형평성 이론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예측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세율과 세금의 액수를 유사한 직종에 있는 다른 사람의 그것과 비교하고, 만약 그들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국가가 정한 세율을 합당하다고 보고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반면, 그들이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탈세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평성의 이론적 의미가 이와같이 단순히 한 가지로만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평성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개념화할 수 있다. 첫째로, 앞서 기술한 형평이론들이 상정하듯이, 유사한 경제적 여건에 있는 사람 사이에 관계된 형평성을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이라고 할 수 있다. Spicer와 Becker(1980)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적은 액수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되면 탈세를 하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둘째로 소득이 많고 적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된 형평성을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균일과세(uniform taxation)는 수평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과세 정책이고, 누진과세 제도(progressive tax structure)는 수직적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세정책이다(박광배, 1994). 균일과세 제도는 소득이 동일한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누진과세 제도는 소득이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Hawthorne & Jackson, 1987). 누진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심리적 근거는 소득이 커지면 잉여소득에 대하여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그 잉여소득에 대한 심리적 중요성이 감소되어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여도 납세자는 조세로 인한 고통을

덜 느끼게 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도 그에 대한 저항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옥무석, 1993).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 이외에 한 사람이 지불한 세금의 양과 정부로부터 받은 보편이나 교육과 같은 사회적 혜택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경우, 이와같은 형평성을 교환적 형평성(exchange equity)이라고 한다(Scott & Grasmick, 1981).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타 집단이나 개인에게 어떤 이득이나 도움을 주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응분의 보상을 받으려한다(장성수, 이수원, 정진곤 1990). 교환적 형평성에서 정부와의 교환적 관계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의 중요한 요소는 정부를 얼마나 믿을만한 거래동반자로 생각하느냐이다. 정부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들이 탈세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는데(Spicer & Lundstedt, 1976), 이것은 탈세행위에 대하여 교환적 형평성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탈세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이 수평적 형평성이나 교환적 형평성의 개념에 비하여 더 추상적이고, 개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수평적 형평성의 경우에는 자신과 비슷한 경제적 수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징수되는 세액을 자신이 납부하는 세액과 비교하여 형평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교환적 형평성의 경우에는 정부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형평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직적 형평성의 경우는 어떤 특정한 한가지의 기준에 의해 형평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수입이 100만원이고, B는 수입이 10만원인데, A에게는 20만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B에게는 2만원이 세금으로 징수된다면, 수직적 형평성이 이루어진 것일까? 위의 예에서 두 사람은 모두 수입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객관적으로는 수직적 형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사회에서는 고소득자에게는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가 세수입을 극대화하고 사회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특정한 가치체계와 규범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직적 형평성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평적 형평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관 및 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수평적 형평성의 판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결과의 비교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세금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들의 판단에 비하여 규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실질적인 결과의 비교에 의해 공정성을 판단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예측이 맞았다면 대학생들은 사업자들에 비하여 수직적 형평성이 파기된 경우 더 심한 탈세행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사업자들은 수평적 형평성과 교환적 형평성의 파기에 대하여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 방 법

### 피험자

충북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과 청주시와 청주시 주변지역에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사업자의 경우 평균 연령은 만 33.8세이었고 매장운영 기간은 평균 3.5년이었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 중 실험을 도중에 중단하거나 자신의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실험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분석에서 배제된 피험자의 수는 대학생 집단에서 1명, 사업자 집단에서는 8명이었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자료의 수는 사업자 60명, 대학생 60명이었다.

###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피험자 집단과 형평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2\*4 요인설계이다. 피험자 집단은 대학생과 사업자로 이루어진 피험자간 요인이었고 형평성은 수직적 형평성 파기 조건, 수평적 형평성

파기 조건, 교환적 형평성 파기 조건 그리고 형평성 유지 조건으로 이루어진, 역시 피험자간 요인이었다. 피험자들은 각 형평성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수직적 형평성이 파기된 조건에 있는 피험자는 각 분기마다 소득을 신고하기 전에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매장은 이번 분기에(가중된 금액) 만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순수입은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신고된 순수입의 30%를 세금으로 징수합니다.'라는 지시문을 제시해 준 후, 소득을 신고하게끔 하였다. 이 지시문에서 '가중된 금액'이란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의 순수입보다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예: 가중된 금액=피험자의 순수입 \*4.5). 수평적 형평성이 파기된 조건에 있는 피험자는 '대전 지역에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당신과 동일한 순수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입의 10%가 세금으로 징수된 반면, 당신은 신고한 순수입의 30%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라는 지시문을 제시해주고, 교환적 형평성이 파기된 조건에서는 '정부에서는 컴퓨터 판매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끼워주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라는 지시문을 제시해 주었다. 각각의 실험집단이 파기된 형평성 조건에 맞게 하기 위해 각 분기(4분기)마다 형평성 파기 내용을 약간 변형하여 제시해 주었다. 반면, 형평성 유지 조건에서는 형평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분기마다 순수입을 신고하게끔 하였다. 컴퓨터 게임에 사용된 각 분기별 내용은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 컴퓨터 게임

과거의 탈세연구들은 게임상황을 이용한 실험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게임상황을 이용한 모의실험(simulation), 즉 가상적 상황을 Turbo C<sup>+</s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실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주수입원과 주지출원을 조사하여, 이 요소를 토대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수입원 5가지(컴퓨터 판매, 소프트웨어 판매, 프로잭

트, 주변기기 판매, 컴퓨터 수리)와 주지출원 6가지(판공비, 광고 및 홍보비, 개발비, 운영비, 출장비(A/S), 인건비)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의 게임상황에서 지출과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물가, 신학기 시작, 직원 신규채용, 새로운 컴퓨터 기종 판매, 경쟁업체 등장, 방학, 그리고 계절을 변화시켜 실제 컴퓨터 매장 운영과 비슷한 상황으로 조작하였다(부록2 참조).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피험자가 직접 한달 동안의 매장 운영에 필요한 지출액을 결정하면, 결정한 지출액을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가중된(weighted) 수입을 구한다. 가중된 수입을 구하는 이유는 지출보다 수입을 많게 하여 매 달의 게임상황에서 적자가 아닌 흑자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수입을 제시하고, 달이 바뀌면 지출과 수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지시문을 제시해주고 같은 방식대로 1년(12달) 동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게끔 하였다. 3개월을 1분기로 하여 이 기간동안의 순수입 합계를 제시해 주고, 형평성 조작을 한 지시문이 나타나게끔 하여 이에 준하여 소득 신고를 하게 하였다. 소득의 신고는 4분기 동안 네번 하게 된다.

## 절차

대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컴퓨터 매장을 직접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청구서에 있는 컴퓨터 매장을 개별 방문하여, 성공적인 컴퓨터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중요한 지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게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탈세 행위가 숨겨진 행위이기 때문에 피험자의 주의를 성공적인 비즈니스 수행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다음 학생은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는 곳에서, 사업자는 자신의 매장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작동시킨 다음 지시문을 정확히 읽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게끔 당부하였다. 모의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이었다.

##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액수에 대한 탈세액수의 비율로 정의되었다. 이 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실제 소득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된 소득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둘 사이의 차이를 구하여 탈세액을 산출하였다. 이 탈세액을 납부해야하는 세액에 대한 비율로 전환하여 “탈세량”을 산출하였다.

## 결 과

우선, 탈세 행동이 형평성 조건(수직적 형평성 파괴, 수평적 형평성 파괴, 교환적 형평성 파괴, 형평성 유지)에 따라 다른지, 또한 집단과 각각의 형평성 조건이 상호작용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직교대비 코딩(orthogonal contrast coding)에 의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평성의 네 조건이 직교대비 되었는데, 첫 번째 대비(대비 1)는 불형평 조건(수직적 형평성 파괴 조건, 수평적 형평성 파괴 조건, 교환적 형평성 파괴 조건)과 형평 조건(형평성 유지 조건)의 대비이고, 두 번째 대비(대비 2)는 他-비교(수직적 형평성 파괴 조건과 수평적 형평성 파괴 조건)와 自-비교

(교환적 형평성 파괴 조건)의 대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대비(대비 3)는 수직적 형평성 파괴 조건과 수평적 형평성 파괴 조건의 대비이다. 표1에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1의 결과에서 보듯이 형평성 조건에 따른 탈세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3, 112)=7.22, p<.001$ ). 형평성 각 조건에서 탈세량의 평균을 살펴보면, 수직적 형평성 파괴 조건이 8.86, 수평적 파괴 조건이 10.65, 교환적 형평성 파괴 조건이 7.64 그리고 형평성 유지 집단에서는 3.02으로 각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형평성 파괴 조건이 형평성 유지 조건 보다 탈세 행동을 더욱 유발한다고 볼 수 있고, 수평적 형평성이 파괴되었을 경우 가장 많은 탈세량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하기 위하여 형평성 조건의 각 직교대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형평성에 대한 첫 번째 대비가 유의미하였다( $F(1,112)=18.53, p<.001$ ). 이것은 형평 조건과 불형평 조건에서 탈세 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형평성 조건의 유의미한 주효과는 통제집단(형평 조건)과 실험집단(세 개의 불형평 조건)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집단에 따른 탈세량의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F(1,112)=10.02, p<.01$ ). 이는 탈세 행동이 대학생과 사업자 집단에서 다른 양상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모든 조건에서 대학생 집단의 탈세량이 사업자 집단의 탈세량보다 많았다.

집단과 대비 3과의 상호작용이 유의미 하였다( $F(1,112)=5.65, p<.05$ ). 탈세 행동에 대한 대비 3(수직적 형평성 v. 수평적 형평성)과 집단(대학생 v. 사업자)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는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이 탈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마다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 집단은 수직적 형평성이 파괴되었을 때 가장 많은 탈세량을 보인 반면, 사업자 집단은 수평적 형평성이 파괴되었을 때 가장 많은 탈세량을 보였다. 대학생과 사업자 집단 각각의 형평성 조건에 따른 탈세량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학생 집단의 경우 수직

표 1. 탈세행동에 대한 집단과 형평조건간의 변량분석 결과

변산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집 단	441.99	1	441.99	10.02**
형평성	955.53	3	318.51	7.22***
대비 1	817.76	1	817.76	18.53***
대비 2	89.40	1	89.40	2.03
대비 3	48.38	1	48.38	1.10
집단×형평성	261.93	3	87.31	1.98
집단×대비 1	12.31	1	12.31	0.28
집단×대비 2	0.35	1	0.35	0.01
집단×대비 3	249.27	1	249.27	5.65*
오 차	4942.31	112	44.12	

\*  $p<.05$  \*\* $p<.01$  \*\*\* $p<.001$

대비1: 불형평 조건과 형평 조건의 대비

대비2: 他-비교(수직/수평)와 自-비교(교환)의 대비

대비3: 수직적 형평 파괴 조건과 수평적 형평 파괴 조건의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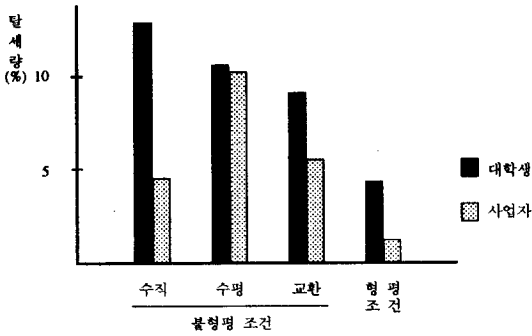


그림 1. 형평성 조건에 따른 탈세량

적 형평성 파기 조건이 13.04, 수평적 파기 조건이 10.76, 교환적 형평성 파기 조건이 9.65 그리고 형평성 유지 집단에서는 4.38이었다( $F(3,56)=3.22, p<.05$ ). 사업자 집단의 경우에는 수직적 형평성 파기 조건이 4.67, 수평적 파기 조건이 10.54, 교환적 형평성 파기 조건이 5.62 그리고 형평성 유지 집단에서는 1.66이었다( $F(3,56)=7.94, p<.001$ ). 형평성 조건에 따른 평균 탈세량의 차이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형평성(형평 조건 v. 불형평 조건)에서 탈세 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2)대학생 집단의 탈세량이 사업자 집단의 탈세량보다 많았다; (3)대학생 집단은 수직적 형평성이 파기되었을 때 가장 많은 탈세량을 보인 반면, 사업자 집단은 수평적 형평성이 파기되었을 때 가장 많은 탈세량을 보였다.

## 논 의

대학생 집단과 사업자 집단 모두에서 형평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수직적, 수평적 그리고 교환적 형평성이 파기된 조건에서 형평성이 유지된 조건 보다 더 심한 탈세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이나 사업자 모두 불형평 조건일 경우 심리적 긴장이나 불편감을 유발시켜 형평 상태로 환원하기 위해 탈세 등의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론(e.g., Adams, 1965; Adams & Freedman,

197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모든 조건에서 대학생들의 탈세량이 사업자의 그것보다 많았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 가지는, 주로 대학생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들은 아마도 실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탈세보다 많은 탈세량 및 탈세빈도를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때때로 엄청난 량의 탈세를 범하고, 신문 등에 보도되곤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추측되는 것보다 적은 양의 탈세를 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두번째 가능한 의미는 본 연구의 "사업자" 집단이 자신들의 실제 생업에서 범하는 탈세보다 적은 탈세를 컴퓨터 게임에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이 문제는 보다 많은 후속연구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과 결론에는 큰 해석적 모호함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관심사는 실제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탈세량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험자들이 다른 조건에서 다른 탈세행위를 보이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표1에 제시된 집단과 대비 3의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이다. 이 상호작용효과의 의미는 대학생 집단이 수직적 형평성이 파기되었을 때 가장 많은 탈세량을 보인 반면, 사업자 집단은 수평적 형평성이 파기되었을 때 가장 많은 탈세량을 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가설이 매우 명확하게 지지되었다. 이는 대학생 집단에서는 누진과세 제도가, 사업자 집단에서는 균일과세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불형평을 강하게 지각하고, 그 지각된 불형평을 복구하기 위하여 탈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Carroll(1987)에 의하면 탈세결정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선택처리 모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두개의 모형중 '결과처리 모형(Outcome-processing Model)'은 탈세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탈세결정을 한다는 모형이고, 또 다른 모형인 '규범처리 모형(Norm-processing Model)'은 탈세의 도덕성, 규범성 여부에 따라 탈세결정을

한다는 모형이다. 결과처리모형에 의하여 탈세결정을 하는 사람은 탈세에 의해 생기는 이득과 발각될 확률 및 발각된 경우에 생기는 손실을 비교하여 탈세결정을 한다. 반면에 규범처리모형에 의해 탈세결정을 하는 사람은 조세제도의 정당성, 탈세의 부도덕성, 탈세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 탈세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에 기초하여 탈세결정을 한다.

그런데 Carroll(1987)의 두 가지 선택처리모형은 탈세결정 그 자체보다는 형평성 판단에 개입하는 모형으로 개념화될 때 더 풍부한 이론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결과처리 모형은 지각된 형평성이 이득과 손실의 비교와 같은 실리(實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자신의 실질적인 이득과 실질적인 손실을 비교해 형평성을 판단하는 경우이다. 실질적인 이득이 실질적인 손실보다 크면 조세정책이 올바르다고 지각할 것이고 손실이 많게 되면 조세정책이 형평을 상실했다고 지각할 것이다. 반면에 규범처리 모형은 자신에게 적용된 조세정책에서 이득과 손실의 차원이 아니라 규범적인 권리, 도덕적 책임, 의무 등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형평성을 판단한다. 예를들어, 자신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지위와 권한이 있다고 지각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형평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신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Kinsey, Grasmick과 Smith(1991)의 연구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정책의 형평성을 평가할 때 정부의 정책을 판단대상으로 간주하면 결과처리 모형에 의해 형평성을 평가하는 반면, 다른 납세자 집단을 판단대상으로 간주하여 형평성을 평가하게 되면 규범처리 모형을 사용한다고 한다.

집단과 대비 3의 상호작용의 이유는 대학생 집단이 규범처리모형에 의해 형평성을 판단하는 반면, 사업자 집단은 결과처리모형에 의해 형평성을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가진다. 첫째,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은 수평적 형평성의 개념에 비하여 보다 이념적인 개념이고, 수평적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보다 현실적인 형평개념이다. 둘째, 형평성 판단에 개입하는 규범처리모형은 보다 이념적이고 규범적인

형평개념인 수직적 형평성 판단에 강하게 개입할 것이고, 결과처리모형은 보다 실질적인 형평개념인 수평적 형평성 판단에 강하게 개입할 것이다. 셋째,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세금이 실제 생활에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업자들은 결과처리모형에 의한 형평판단에 익숙하여 수평적 형평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납세가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대학생들은 규범처리모형에 의한 형평판단에 익숙하여 수직적 형평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될 수 있다. 규범처리모형에 의해 형평성 판단을 하는 납세자는 주로 수직적 형평성에 주목하여 납세행위를 하는 반면, 결과처리모형에 의해 형평성 판단을 하는 납세자는 주로 수평적 형평성에 주목하여 납세행위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택처리 모형과 형평성의 관계는 앞으로의 보다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연구주제이다.

이론적인 관점을 떠나서, 현실적인 조세제도를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정부의 조세정책과 세법에 따라 탈세의 정도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실험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확인된 예는 매우 드물다. 국가의 입장에서 탈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법정의를 구현하고 국가의 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런데 탈세를 적발하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작업이며, 흔히 탈세적발에 의해 회수되는 수입보다 적발을 위하여 소모되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국가가 탈세를 적발하여 세수입을 늘리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형평개념에 맞는 조세정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납세를 충실히 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합리적인 조세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형평개념에 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형평개념은 이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와 같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파악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실제적인 형평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구현하는 첫걸음이 되고, 그러한 합

리적인 조세정책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국가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번째 실질적 결과는 소규모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한국사회의 계층간 갈등(수직적 형평)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 반면, 수평적 형평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제도화된 균일 과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평적 형평성이 파괴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세행정의 관료주의(bureaucratism)와 부패라고 사료된다. 관료주의는 맹목적이고 일률적인 정책시행에 의하여 사람들의 지각된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부패는 그 자체가 명백한 불공정성이기 때문이다. 사업종류와 규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지역적인 사업유망성이나 특정한 사업자에게 발생한 특정한 사유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사업자들의 지각된 수평적 형평성을 파괴하여 많은 탈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조세행정의 부패에 의하여 일부 사업자가 불공정한 혜택을 받는다면 역시 나머지 비슷한 사업자들의 탈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평성에 따른 탈세연구에서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 보인 대학생들의 탈세행위는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탈세행위를 일반적인 “일탈행위” 혹은 사회규범에 대한 “저항행위”로 본다면, 수직적 인간관계 혹은 수직적 사회관계에서의 불균형 및 불형평이 그러한 저항행위를 유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 참 고 문 헌

박광배(1994). 法 심리학. 정민사, 407-439.  
옥무석(1993). 조세정책과 세계개혁의 공과. 법과 사회, 7, 60-80.  
장성수(1986). 형평이론. 한국심리학회 '86 동계 연수회 발표 논문집, 283-314.

장성수·이수원·정진곤(1990).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 분배정의에 관한 연구 - 공정조망과 인정조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교육논총 3권, 17-265.  
Adams, J. S.(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267-299.  
Adams, J. S., & Freedman, S.(1976). Equity theory revisited: Comments and annotated bibliograph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 43-90.  
Carroll, J. S.(1987). Compliance with the law: A Decision-making Approach to Taxpaying. *Law and Human Behavior*, 11, 319-335.  
Crosby, F. J.(1982). Relative Deprivation and Working Wome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Festinger, L.(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 7, 117-140.  
Hawthorne, Michael R., & John E. Jackson(1987). The individual Political Economy of Federal Tax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757.  
Homans, G. C.(1974).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Rev. ed. *New York: Harcourt, Brace, & Jovanovich*.  
Kinsey, K. A., Grasmick, H. G., & Smith, K. W. (1991). Framing Justice: Taxpayer Evaluation of Personal Tax Burdens. *Law & Society Review*, Vol. 25, No. 4, 846-873.  
Scott, W. J., & Grasmick, H. G.(1981). Deterrence and income tax cheating: Testing interaction hypotheses in utilitarian theorie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7, 395-408.  
Spicer, M. W. & Becker, L.(1980). Fiscal inequality and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June, 33, 171-175.  
Spicer, M. W., & Lundstedt, S. B.(1976).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31(2), 295-



Walster, E., Bersheid, E., & Walster, G. W.(1973).

New directions in equity research, *Journal of  
Pe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151-176.

Walster, E., Bersheid, E., & Walster, G. W.(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Allyn &  
Bacon.*

Webley, P., Robben, H., Elffers, H., & HESSING, D.  
(1991).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 1. 형평성 파기 조건에 따른 각 분기별 지시문

	수직적 형평성 파기	수평적 형평성 파기	교환적 형평성 파기
1/4 분기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매장은 이번 분기에(가중된 금액) 만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순수입이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신고된 순수입의 30%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가중된 금액 = 순수입*4.5	대전지역에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당신과 동일한 순수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10%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반면, 당신은 신고한 순수입의 30%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정부에서는 컴퓨터 판매시 일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끼워주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2/4 분기	가중된 금액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  가중된 금액 = 순수입*6.5	내용은 동일하고 다른지역의 세율을 변화시킬  변화된 세율: 8%	정부에서는 컴퓨터 매장 신규허가에 거리제한을 폐지시킬 예정입니다.(예: 바로 옆에 다른 컴퓨터 매장이 생길수있습니다)
3/4 분기	가중된 금액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  가중된 금액 = 순수입*8.5	내용은 동일하고 다른지역의 세율을 변화시킬  변화된 세율 : 6%	정부에서는 외국업체의 컴퓨터 직판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4/4 분기	가중된 금액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  가중된 금액 = 순수입*10.5	내용은 동일하고 다른지역의 세율을 변화시킬  변화된 세율 : 4%	한국통신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부록 2. 컴퓨터 모의실험에 사용된 월별(2월-12월) 지시문

	지	시	문
2월	이번달에 물가가 10% 상승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십시오. 아무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		
3월	이번 달은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십시오. 아무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		
4월	이번 달에는 사무직 직원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십시오. 아무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		
5월	이번달에 새로운 컴퓨터 기종이 시판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십시오. 아무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		
6월	이번달에는 우리 지역내에 컴퓨터 매장이 한군데 더 생길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십시오. 아무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		
7월	이번 달은 하절기 방학이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십시오. 아무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		
8월	이번 달은 무더운 여름입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십시오. 아무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		
9월	이번 달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십시오. 아무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		
10월	이번 달에 지역내 경쟁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십시오. 아무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		
11월	이번 달은 추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십시오. 아무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		
12월	이번 달은 1년을 마감하는 연말입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십시오. 아무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		

## The Effect of Equity on Tax Evasion

Yun-Sang Yu, Kwang-Bae Park and Yu-Gean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quity on tax evasion. Two groups of subjects were compared to each other in a simulated business computer game. One group was college students and the other group was small business owners. It was expected that the judgment of vertical equity is strongly influenced by personal norms and values regarding distributive justice, whereas the judgment of horizontal equity is more a function of the balance in actual outcomes. It was also expected that the college students' judgment of equity is strongly influenced by personal norms and value, whereas the equity judgment of business owners is more influenced by the actual outcomes. With the two groups,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tested: (1) College students react sensitively to vertical inequity and show a greater degree of tax evasion when vertical equity is violated than when other types of equity are violated; (2) business owners react sensitively to horizontal inequity and show a greater degree of tax evasion when horizontal equity is violated than when other types of equity are violated. Both hypotheses were clearly supported.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violation of any type of equity increases tax evasion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 subject.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